

# 소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려면



교수 이 방 환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수의학박사)

## 1. 이상상태 (異常狀態) 의 조기발견의 중요성

소가 노골적인 질병증세를 보이기 이전에 질병상태로 들어가려는 단계에서 시초의 이상(異常)을 재빨리 쉽게 파악한다는 것은 곧 낭비없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뜻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같은 원인으로 다른 건강한 소에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질병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질병 사고로 인한 경비지출이 절약되고 또한 생산성의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둘째**로는 어떤 질병이든 조기에 발견될수록 그만큼 치료 경비와 회복시간이 단축되고 회복률이 높아지며 (바꾸어 말하면 폐사손실이 적어지며) 또한 관리에 요하는 노동력과 정신적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육장이든 조기에 이상(異常)을 적발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만큼 사양관리의 질적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생산성이 앞선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이상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곧 사료에 대한 세심한 관심, 발정우(發情牛)의 정확한 적발, 번식효율 및 생산효율의 감소에 대한 예민한 감각, 또는 위생적 관리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에 있어서도 남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일한 조건의 생산기반에서 생산효율의 우열은 관리인의 능력에 달

려 있고 관리인의 능력은 곧 이상상태의 조기파악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 2. 이상(異常)의 파악은 먼저 정상을 숙지(熟知)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상(異常)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정상(正常)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중병(重病)상태의 이상은 누구나 쉽게 파악되는 것이지만 일단 병에 걸린 것이 확인된 후부터는 정상인 것 마저도 이상인 것으로 착각하며 진술되는 사례를 흔히 경험하게 되고 반대로 식욕이나 생산능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어느 국소(局所)에만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 이상이 흔히 당연히 정상인 것처럼 진술되는 사례도 경험해 오고있다. 이와같이 이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상에 대한 익숙한 관찰경험이 쌓여져야 할 것이며, 이상의 조기발견을 잘 알 수 있는 관리인이라면 그만큼 평소에 건강한 소의 정상상태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상태를 조기에 잘 파악하는 비결은 곧 평소에 건강한 상태(正常)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가축과 친숙하게 되어서 표정이나 자세나 가지 가지의 다양한 거동 등을 통해서 대화가 통할 수 있을 만큼 “정이 깊은 친숙도(親熟度)”가 쌓여져야만 한다.

질병의 조기발견의 방법은 두가지 각도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이상상

태(異常狀態)의 관찰에 관한 설명이고 둘째는 확실한 이상 즉 뚜렷한 증세가 나타났을 때 어떤 병인가를(病名) 알아맞추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3. 일반적 이상상태의 관찰

#### 가. 얼굴표정의 이상

얼굴이 굳어보이는 표정(硬直表情)은 파상풍(破傷風)에서 나타나며 소에서는 거세(去勢), 제각(除角) 또는 기타의 여러 수술후에 드물게 볼 수 있으며 수술상처로 파상풍균이 감염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소의 공수병(광견병:狂犬病) 또는 급성 납중독(急性鉛中毒)에 있어서는 응시(凝視:뚫어지게 보는 것) 또는 광적(狂的) 표정이 나타난다.

#### 나. 거동의 이상

1) 소의 무리에서 이탈 낙오된 소는 대개의 경우 질병이 잠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2) 외부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이나 큰 소리와 같은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민감한 소의 거동은 건강하다는 표시가 된다. 정상보다 약간 둔하게 된 것은 우둔(愚鈍)으로 표현하는데 이것 역시 병에 걸렸다는 증거이다. 기립상태를 지속할 수 있고 이동도 가능할 정도이면서도 외부자극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치태(痴呆)로 표현하는데 이는 케톤증(Ketosis)의 일부 예에서, 간경변증, 아급성납중독(亞急性鉛中毒) 및 리스테리아 병(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이 없음)에서 볼 수 있다.

3) 흥분상태의 거동도 유의해야 한다. 가장 경미한 흥분상태는 걱정 또는 불안으로 표현하며 소는 주위를 돌아보며 경계하지만 운동은 정상이다. 이러한 가벼운 흥분상태는 유열(乳熱)의 초기 중등도의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때 또는 최근에 실명되었을 때 이상감각(異常感覺)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말의 산통(疝痛)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안전부절하는 심한 흥분동작은 소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광조(狂躁)나 광폭(狂暴)으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흥분동작은 소

의 공수병(또는 광견병:狂犬病), 급성납중독(急性鉛中毒) 및 신경형의 케톤증의 일부 증세에서와 같은 뇌흥분이 있을 때 나타난다.

#### 다. 자세의 이상

자세의 이상은 반드시 질병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다른 증세와 함께 나타났을 때는 병환부위(病患部位)와 병증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사지에 통증이 있을 때 그중 하나의 다리를 쉬게하고 체중의 부담을 이 다리에서 저 다리로 계속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상 자세는 소에서는 주로 발굽에 병이 있을 때 나타난다. 소의 중요한 발굽병으로서는 부제병(腐蹄病), 발굽의 외상(外傷:발굽에 못, 철사, 핀 등이 박히는 경우), 지간피부염(趾間皮膚炎), 열제(裂蹄:제벽의 균열), 제벽(蹄壁)의 과생성(過生成), 지골골절(趾骨骨折), 지간섬유증(趾間纖維腫) 또는 제엽염(蹄葉炎:발굽내부의 충혈과 통증) 등이 있다.

2) 등을 윗쪽으로 둥글게 구부리고 서있는 모습은 주로 소화기관의 통증 및 기타의 내부장기의 통증이 있을 때에 볼 수 있다.

3) 소에서 앞다리의 겨드랑을 벌리고 서있는 모습은 가슴속의 통증 특히 외상성 제2위염(外傷性第二胃炎) 그리고 호흡곤란이 있을 때 흔히 볼 수 있다.

4) 꼬리가 굳어지고 사지가 굳어지는 것은 파상풍(破傷風)의 특징적인 증세이지만 복강장기(腹腔臟器)내에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에는 뒷다리가 굳어져 보이므로 파상풍과 혼동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5) 누워있는 자세의 이상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소의 고관절탈구(股關節脫臼) 또는 좌골신경마비에 있어서는 아픈 쪽의 다리를 몸체의 밑으로 구부려당기지 못하고 어색하게 뻗어 내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육중한 소의 임신 말기에 가끔 볼 수 있다.

가슴의 한쪽에 통증이 있을 때는 반대쪽을 밑으로 하여 눕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뒷다리 중의 한쪽 다리가 약할 때는 약한 쪽의 다리가 몸

체의 밑으로 온다. 양쪽 뒷다리에 고관절탈구가 생긴 소에 있어서는 흔히 흉골을 밑으로 엮드린 채 양 뒷다리는 뒷쪽으로 뻗고 있는 개구리 모양의 자세를 보인다. 유열(乳熱: 低 칼슘血症)에 있어서는 머리를 옆구리로 돌리고 누워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립불능 또는 기립을 싫어하는 것은 보통 중한 병에 걸려있을 때나 다리에 통증이 있을 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원인으로서는 유열, 목초베타니(低Mg血症), 관절통(關節痛: 유혈열 또는 이바라기병과 같은 인프루엔자 유사 질병에서 흔히 일어난다), 제염염, 근이영양증(筋異營養症) 또는 근허약(筋虛弱) 등이 중요한 원인이다.

## 라. 걸음걸이의 이상

1) 관절염이나 제염염(蹄葉炎)에 걸린 소는 관절이나 발굽에 통증이 있으므로 보폭이 줄어들어 질질 끌면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보인다.

2) 머리를 한쪽으로 구부리거나 기울이면서 한쪽으로는 돌면서 걷는 모습을 선회보양(旋回步樣)이라고 한다. 소에서의 선회보양은 매우 드문 편이지만 영구적인 선회보양은 뇌공미낭충증(腦共尾囊虫症 또는 腦包虫症) 또는 리스테리아병에서, 그리고 일시적인 선회보양은 케톤증과 임신중독증의 일부 예에서 드물게 볼 수 있다.

## 마. 음성(音聲)의 이상

신경형(神經型) 케톤증에서 간혹 지속적인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급성의 통증이 계속될 때에도 간혹 낮은 목소리의 울부짖음(웅웅거리는 소리)을 들을 수 있다. 소리없는 울음동작과 하품을 하는 것은 소의 공수병(또는 광견병)에서 보통으로 볼 수 있는 일이며 또한 하품은 간기능부전에 걸린 소에서 보통으로 나타난다.

## 바. 영양상태 및 체격의 이상

1) 사료섭취의 동일한 조건 밑에서 뚜렷한 증세도 없이 여윈(수척한) 소가 있다면 이것은 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을 의심해야 한

다. 이러한 질병은 우결핵, 존시병(파라結核), 위장기생충증, 간디스토마증 및 만성소화 불량증 등이다.

2) 일반적으로 발육이 불량한 소는 머리가 크게 보인다. 그 이유는 머리는 빨리 커서 고정되는데 비해서 체구의 발육이 이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이 먹고도 잘 커지 않는 소는 배가크고 밑으로 쳐져 보인다. 이러한 소는 앞에서 설명된 바 있는 만성 소모성질병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회복된다 할지라도 생산성이 좋지 못하다.

## 사. 피부의 이상

1) 영양불량 또는 만성 소모성질병(바탕을 참조할 것)에 걸려있는 소는 털이 거칠고 건조하고 윤기가 없으며 털이 잘 빠져나간다. 또한 긴 동모(冬毛)가 비정상적으로 오래 남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여윈 소는 피부가 가죽 같이 변하여 피하적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은 여위지 않은 건강한 소에서도 어느 일부분의 피부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 또는 응애와 같은 미세한 기생충이 피부에 많이 기생하고 있을 때 볼 수 있다.

2) 소의 각화증(角化症) 및 부전각화증(不全角化症)에 있어서는 미만성의 (피부전반에서의) 탈모(脫毛)가 보이고 심하면 파부가 두꺼워지면서 주름이 생긴다. 움에 걸린 소는 국소성(군데 군데에서) 탈모가 생기기 시작하여 점차로 번져나가며 후에는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주름이 잡히고 습기(진물)가 감돌며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피부에 버짐이 생기면 군데 군데 탈모가 생기고 후에 송진같은 단단한 딱지로 덮이게 되며 가려움증도 나타난다.

3) 우리나라의 소에는 피부유두종(皮膚乳頭腫)이 매우 많이 발생된 것 같다.

이것은 피부에 버섯모양의 종양(腫瘍)이 여러 개 생기는 병으로 사람의 사마귀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 생기면 성장에 다소 지장이 있다.

4) 여름철에 파리, 모기 또는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피부에 붉은 점과 같은 출혈점이 무수히 나타난다. 피부를 물로 씻고 말린후에 보면 잘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